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18 글로벌정책리서치 중국연수 결과보고서

글로벌 정책리서치 과정 개요

연수단명	○ 2018년 글로벌정책리서치
연수단구성	○ 참가자 : 13명(목포시 : 지방행정 6급 손영란) (시군구 교류 민 문화관광 담당 공무원 10명 및 시도지사협의회 본부1명 중국사무소2명)
연수기간	○ 2018년 10월 13일(토) ~ 10월 20일(토) 7박 8일
연수지역	○ 중국 쓰촨성(청두), 허난성(카이펑, 정저우-등봉시)
조사목적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 연구 ○ 중앙 집권적인 중국의 관광 정책과 우리나라의 지역 관광 정책 비교 연구 및 벤치마킹 사례 발굴 ○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와 연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시너지 효과 제고 ※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참가로 정책세미나 대체 ○ 관광정책 수립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시·군·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광발전 성공사례를 통해 대한민국관광발전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시·군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글로벌 정책리서치 과정 개요

■ 연수자 명단

연번	지자체명	부서명	직급	성명	성별	비고
1	시도지사협의회	총무과	행정6급	권**	남	
2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행정5급	강**	남	
3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전문라급	고**	여	
4	경기 화성시	문화예술과	행정6급	신**	여	
5	강원 정선군	자치행정과	행정7급	한**	남	
6	강원 태백시	관광문화과	행정5급	소**	남	
7	충남 부여군	미래전략담당관	행정6급	박**	여	
8	충남 금산군	기획감사실	행정7급	최**	남	
9	충남 태안군	기획감사실	행정6급	최**	남	
10	전북 남원시	관광과	행정8급	탁**	남	
11	전남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행정6급	손**	여	
12	경남 진주시	문화예술과	행정5급	신**	남	
13	울산 울주군	세무2과	행정8급	변**	여	

글로벌 정책리서치 과정 전체일정

일자	도시명	시간	연 수 내 용
제1일차 10/13 (토)	인 천 청 두	17:00 20:00 23:0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A카운터 앞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 청두 도착 후 가이드 미팅 (비행시간 4시간) 호텔로 이동 체크인 및 휴식
제2일차 10/14 (일)	청 두 산 청 두	08:00 09:30 13:30 15:30 17:30	호텔 조식 러산으로 이동 (약2시간소요)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불상-러산대불(유람선탐승) 청두로 귀환 제갈량을 모신 사당-무후사, 유비묘 삼국시대의 거리를 재현한 금리거리 호텔로 이동 휴식
제3일차 10/15 (월)	청 두 두장옌 청 두	08:00 09:30 11:30 12:30 13:30 17:30	호텔 조식 ▶공식일정1(쓰촨성 여유국 9:30-10:30) 중식 두장옌으로 이동(약1시간소요)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두장옌 수리시설 시찰 청나라의 옛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관찰항자 석식 후 호텔 휴식 청두로 귀환
제4일차 10/16 (화)	청 두 안인고진 청 두	08:00 09:30 13:00 16:00 17:30	호텔 조식 ▶공식일정2(한국관광공사 쓰촨지사 9:30-10:30) 안인고진으로 이동(약1시간30분소요) 안런지 시찰(유시장원, 유문휘진열관, 건찬박물관) 청두로 귀환 (약1시간30분소요) 석식 후 호텔 휴식
제5일차 10/17 (수)	청 두 정저우 카이펑	07:00 10:30 12:30 13:00 14:00 15:30 17:00 18:00 20:0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청두 출발 정저우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중식 ▶공식일정3(하난성 여유국 14:00-15:00) 카이펑으로 이동(약1시간30분소요) ▶공식일정3-1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환영만찬 18:00 제36회 국화문화축제 개막식 20:00
제6일차 10/18 (목)	카이펑	08:00 12:00 13:00 15:00 20:30	호텔 조식 ▶공식일정4(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참석) 중식 송도 옛거리 청명상하원+동경몽화쇼 관람 호텔로 이동 휴식
제7일차 10/19 (금)	카이펑 덩 평 정저우	06:00 06:30 09:30 13:30 15:30 21:30	호텔 조식 덩평으로 이동(약2시간30분소요) ▶공식일정5(등봉시 여유국 9:30-10:30) 소림사-무술쇼-탐림 등 시찰 정주로 이동(약1시간30분소요) ▶공식일정6(연수단 토론 간담회) 및 석식 호텔 투숙
제8일차 10/20 (토)	정저우 인 천	08:00 10:45 14:1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정저우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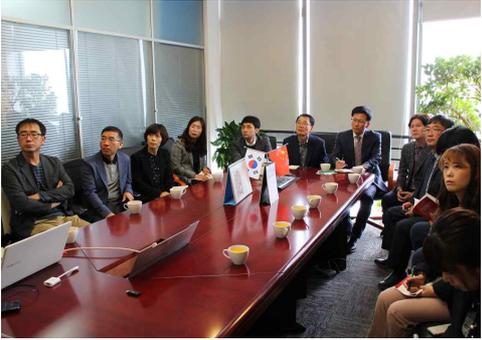
공식 방문 결과

1. 쓰촨성 여유국 : 10월15일(월)

구 분	세부내용
<p>방문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촨성 여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담자 :쓰촨성 여유발전위원회 대외협력처 부처장 추이홍  
<p>주요 면담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촨성은 내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면적은 48.5만 평방미터, 인구는 9천6백만명(중국 내 3번째) 관광자원은 구체구, 황룡, 진사 선사유적, 어메이산, 칭청산, 두장연과 팬더가 대표적 또한 장족, 강족 등 소수 민족고 덩샤오팡, 주덕 등 중국 근대사 인물과 삼국(촉) 지역 자원이 있음 '룽자리'라고 하는 민속적 특성을 잘 살린 숙박형태가 존재함 사천요리가 유명하며, 세계사천요리 평가대회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 유도 과거자원(역사자원)의 관광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정책을 선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로, 삼국지의 경우 예전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반'을 통해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삼국지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함으로써 관광자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음. 2015년부터 "팬더 세계로 나간다. 아름다운 중국", "사천요리관" 운영과 팬더 팬미팅 등 팬더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활동 국제회의 계기홍보 예)2017 WTO 총회, 사천 세계 여행박람회 개최 등 지역항공사인 "사천항공" 해외 10개 사무소와 협조한 관광홍보 추진 중 사천 방문 관광객수는 2017년도 기준 외국관광객 5-6백만명, 국내관광객 6억명 정도로 추산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의 공통적 고민인 박제된 과거자원의 관광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 융합한 문화융성 정책(공자학교 등)이 갖는 시사점이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역사자원과의 병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규교육과정에 편입,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 공식적인 인증절차 등의 활용이 필요 ⇒ 개별 지자체 간의 경쟁보다는 역사권역을 중심으로 연계사업(문화권)의 추진이 필요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브랜드화 및 이의 세계화가 갖는 시사점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음식, 역사자원의 보존 및 개발의 노력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고,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박람회, 국제행사 등의 유치, 그리고 교통과 통신을 활용한 전파를 통해 도시=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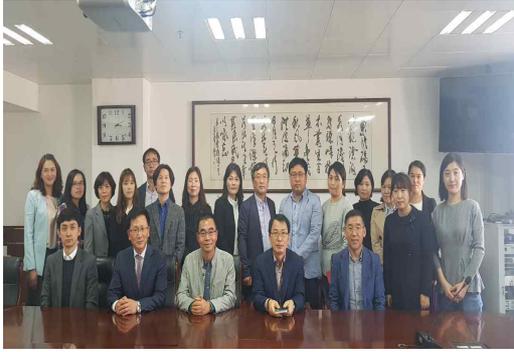
2. 한국관광공사 쓰촨지사 : 10월16일(화)

3. 안론퉈고진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 : 지사장 조홍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론퉈구전(安仁古镇) 청두 안론퉈화교성 문화여유개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 : 산업정책개발부 쉬레이(徐磊) 부총감 - 면담자 : 산업정책개발부 샤즈샤오(夏知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관광산업의 동향 및 관광객 유치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 현지 시장 및 동향조사, 방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지원, 한국 관광 홍보 및 정보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위한 의견 교류 → FIT 및 SIT 관광객 유치방안, 콘텐츠 발굴 및 지역특화 관광 육성방안 및 한국관광 브랜드 강화를 위한 의견 교류 • 안론퉈구전 방문 및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두시 교외의 시골마을이나 지역의 역사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음 → 보존자원을 통해 매년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투자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음 →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골마을의 도시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도시화 정책을 선택 → 역사, 지역 문화, 인문, 스토리 등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종합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중 → 매년 안론퉈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전문가의 자문과 각국의 사례 및 경험을 습득하여 안론퉈개발 모델을 발굴 중

구분	세부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륙지역은 많은 인구가 정주하고 있으나, 바다가 없는 지역으로서 3면의 바다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전략 필요 → 쇼핑, 한류 등과 연계한 지역상품 개발 필요 : 국내면적은 중국내륙에 비해 매우 단거리로서 쇼핑이나 한류가 부재한 지자체더라도 연계 코스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 → SIT 개발 : 각 분야별 동호인을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 필요 → 청소년 교류 활성화 필요 : 수학여행 및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한 청소년 교류단 유치 → 중국국내 이동 거리와 한국으로 이동하는 항공 이동 거리, 비용 등이 비슷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FIT 마케팅을 강화하여 중국 관광객 적극 유치 필요 →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상호 협조와 보완 및 연계 마케팅 필요 · 중국관광객의 관점에서 한국은 면적이 매우 작은 곳으로서, 웬만한 지역간의 이동은 근거리로 인식 · 따라서 컨셉이 유사한 도시간, 또는 이동경로의 다양한 컨셉을 포함한 관광코스 및 상품을 연계 개발하여 상호 협조와 보완 · 지자체 홍보시 면적과 인구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지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음, 통으로 한국으로 인식) · 한국의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홍보시, 중국인의 관점에서 중국의 어느 역사시점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관심을 끌고 이해하기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련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시골마을의 도시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도시가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자원에 대한 보존이 큰 역할을 하였음. 따라서 옛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콘텐츠 발굴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 국가단위의 기본계획을 통한 개발 컨셉을 일원화하고 중복자원 개발을 방지하여 규모의 자원화와 지역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정책이 필요 →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개발 정책모델의 정립이 필요

4. 허난성 외사판공실, 여유국 : 10월17일(수)

구 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난성 외사판공실, 여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 : 허난성 여유국 대외여유합작처 귀지산(郭继山) 처장 허난성 외사판공실 황야징(黄雅静)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허난성 외사판공실, 여유국</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허난성 외사판공실, 여유국</p> </div> </div>
주요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관광자원으로 소림사, 낙양 용문석굴, 태항산, 카이펑 역사도시 등이 있음 • 황하강을 끼고 있으며 중국의 무술, 문자, 음식 등 중화문명의 발상지이며 중국의 상징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지역 • 한국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한국어 안내 및 관광가이드를 육성 중 • 중국의 시작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홍보마케팅 중 • 한국의 많은 지방정부와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원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난성은 중국문명의 시작인 지역이며, 1억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 • 한국의 관광정책 및 문화, 경제, 사회 각종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중국의 동북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척하고 교류해야 할 지역임. • 특히 중화문명의 많은 콘텐츠(한자, 쿵푸, 황하강 등)를 보유한 곳으로서 중국경제와 사회가 발전 할 수록 장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임 • 각종 기관 및 민간분야와 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가 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여야할 지역으로 사료 됨 •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의 역할 중 국제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움

5.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개막식 참석 : 10월18일(목)

구 분	세부내용
방 문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지역 : 허난성 카이펑시 - 참 석 : 500여명/한국100명 - 중국 파견 각 공공기관 담당자 - 주 제 : 협력 상생의 동북아 지역운명공동체 건설 - 주요내용 : 기초강연 및 관련 사례발표, 교류의장, 시찰  
주요 내용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환영만찬 참석 • 국화축제 개막식 참석 • 본회의 사례발표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국제행사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제회의 등 행사 유치에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효과적임을 체험 ⇒ 국화축제의 개막식 참석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연 및 관광재원의 매력도를 확인 ⇒ 한중일 지방정부 담당자 간의 미팅 및 면담을 통해 각국의 지자체간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 ⇒ 동북아 3개국의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가 3국간의 관광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관광자원 개발 시 고려 할 필요성 부각

6. 허난성 덩핑시 여유국 : 10월19일(금)

구 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lbao Ekintza - Turis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 : 여유국 부국장 친위이창(秦伟强) 여유국 공회주석 송하이잉(宋海营) 소림여행사 총경리 차오량(乔良) 여유국 여유촉진과장 차이홍취(蔡宏炬) 덩핑시 외사판공실 왕토펡(王天鹏)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주요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봉시는 정저우시 산하의 현급 시로서 소림사를 주축으로 관광자원화 • 소림무술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중이며, 관내에 전체 48개의 무술학교에 10만여명의 학생이 참여 • 소림사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1,300만명, 관광수입은 한화 1조8천억원 정도 추정 • 소림사는 중국이 세계화 될 수록 점차 관광지로 부각 받고 있음 • 소림사라는 영화의 관람객이 점차 늘고 있음 • 소림 무술제 뿐만 아니라 세계 전통무술대회, 송산 포럼등을 통해 중국의 문화도시로 성장 중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림사와 무술의 성지라는 콘텐츠 하나로 등봉시 전체가 문화도시로 성장 중인 것에서 착안하여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국가차원의 No.1의 콘텐츠를 개발 할 필요가 있음.(ex전주=한옥, 경주=신라 등) • 규모있는 국제대회 및 행사의 개최를 통해 콘텐츠의 효과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콘텐츠의 성지화 • 유사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포럼등 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 콘텐츠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강화 할 필요성을 시사함. • 소림사라는 건물 및 하드웨어보다는 정신적인 영역과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를 세계속에 인식시킴이 오늘날의 소림사를 관광자원으로 만든 원동력으로서, 각종 문화, 미디어, 교육 등의 수단을 통해 각 지자체의 독특한 콘텐츠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됨.

1. 러산대불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산대불(乐山大佛)은 링원대불(凌云大佛)이라고도 한다. 민강(岷江) 강가에 있는 링원산 서쪽 암벽을 통째로 잘라내 새긴 마애석불로서, 713년 창건된 링원사의 본존미륵보살이다. 불상의 규모는 높이 71m, 머리 너비 10m, 어깨 너비 28m이다. 당나라 때 승려 해통(海通)이 배가 안전하게 지나다니기를 기원하여 조각을 시작하였으며, 그가 세상을 떠나자 지앤난(劍南)의 절도사 위고(韋皋)가 90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조각 당시에는 금빛과 화려한 빛깔로 장식하였고 13층 목조 누각으로 덮어 보호하였으나, 누각은 명나라 말기에 불에 타 없어졌다. 1994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어메이산(峨眉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현장 사진	

2. 무후사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소열묘(汉昭烈庙)라고도 한다. 유비와 제갈량의 제사를 모신 사당으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쪽에 위치한 본당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구조이다. 본당 아래에 따면[大門, 대문], 열면[二門, 이문], 유비전(刘备殿), 꾸어팅[过厅, 과청], 제갈량전오중(诸葛亮殿五重)이 있다. 서쪽에는 유비의 묘(刘备陵园)가 있으며, 열면에서 유비전과 동서전(东西殿), 꾸어팅에서 제갈량전(诸葛亮殿)의 동서방향으로 각각 두 개의 곁방이 붙어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사당 내부에는 촉한(蜀汉: 삼국의 하나로 유비가 세움)의 역사적 인물들을 상징하는 토우가 41점에 달한다. 토우들은 청대(清代)의 조각가들이 만들었으며 촉한(蜀汉)의 군신서열에 의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 밖에 탕뻬이[唐碑, 당비]는 사당 내의 중요한 문화재 중 하나이다. 이 비석에는 제갈량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명대(明代)에 이르러 '삼절비(三绝碑)'라고 불렸다.
현장 사진	

3. 유비혜릉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묘(劉備墓)라고도 하며, 무후사의 정전(正殿) 서쪽에 있다. 223년 4월 촉한(蜀漢)의 소열제(昭烈帝) 유비가 지금의 쓰촨성[四川省] 평제현(奉節縣)의 영안궁(永安宮)에서 병사한 뒤, 5월에 시신을 청두로 옮기고 8월에 혜릉에 매장하였다. 후주(後主) 유선(劉禪)은 제갈량(諸葛亮)의 뜻에 따라 유비의 부인 감씨(甘氏)와 오씨(吳氏)의 유골도 합장하였다. 원추형의 능묘는 높이 12m, 둘레 180m로 작은 구렁처럼 보이고, 수목이 울창하고 잔디가 푸르러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짙다. • 능묘는 가림벽과 난간문, 묘지로 향하는 길, 침전(寢殿)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림벽은 길이 10m, 높이 5m이며, 한가운데 마름모꼴의 석각이 새겨져 있다. 위쪽에는 구슬을 희롱하는 한 쌍의 용이 새겨져 있고, 네 귀퉁이에는 박쥐가 새겨져 있다. 난간문은 너비 12m, 안길이 7m이며, 3칸의 한가운데 '한소열릉(漢昭烈陵)'이라고 적힌 현판이 높이 걸려 있다. • 침전은 정면의 너비 11m, 안길이는 8m이며, 대기(臺基) 위에 축조되어 있다. 좌우의 벽에는 3개의 비석이 있다. 침전의 한가운데는 명(明)나라 때 주조된 쇠가마 1개가 있다. 쇠가마는 입구 지름 77cm, 높이 124cm이며, 발이 3개 달려 있고 조형이 고풍스럽다. 침전 뒤편에는 청나라 강희제(康熙帝) 때인 1668년에 축조된 궐방(闕坊)이 있다. 궐방의 한가운데에 '한소열황제지릉(漢昭烈皇帝之陵)'이라고 새겨진 아치형의 묘비가 세워져 있고, 그 지붕돌에는 보물을 다루는 한 쌍의 용이 돌을새김되어 있다. 궐방 뒤편에 유비의 묘가 있다.
현장 사진	

4. 금리거리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리(錦里)는 촉나라 시대의 거리를 재현해놓은 상점가로, 우허우츠 바로 옆에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좁은 길목에 촘촘히 매달린 홍등이 먼저 눈에 띈다. 홍등 아래로 자리한 가게들은 모두 기념품점인데, 화려한 색의 가면,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귀여운 판다 인형 등 욕심 나는 물건이 한가득이다. • 일자로 난 길을 걷다 보면 쉬어가고 싶은 노천카페가 곳곳에 보인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꼬치구이나 국수, 전통 간식을 파는 음식 거리도 시간을 보내기 좋다. • 맛있는 냄새로 여행자를 유혹하는데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라서 항상 사람들이 많다. 모든 건물이 옛 모습 그대로 지어져 있어 삼국시대 촉나라 수도로 번성했던 당시의 청두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현장 사진	

5. 두장엔 수리시설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청산(靑城山)은 해발 1,600m 쓰촨성[四川省] 두장엔[都江堰] 시(市)에 있다. 이곳은 도교의 발생지로 예전 중국에서 도교가 번창하던 시기에는 도교사원이 70여 군데가 있었으나, 현재 38곳만이 남아있다. 건복궁(建福宮)·천사궁(天師宮)·조양동(朝陽洞)·상청궁(上淸宮) 등이 대표적인 도교사원이다. • 두장엔 수리시설은 쓰촨성 청두평원안[成都平原] 서쪽 민강(岷江)에 있다. BC 3세기에 만들어져 약 2,200년이 지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기원전 256년 전국시대 촉(蜀) 지방의 태수 이빙(李冰)이 아들 이이랑(李二郎)과 함께 물살이 빠른 민강의 수량을 조절하여 수해와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관개시스템이다. • 강 가운데 대나무 바구니에 돌을 넣어 가라앉혀서 인공섬을 만들어 물줄기를 둘로 나누었다. 한쪽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흘러보내고, 한쪽은 여러 개의 수로로 나누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어취(漁嘴), 비사언(飛沙堰), 보병구(寶瓶口)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현장 사진	

5. 관착항자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아름다운 10골목 중 3번째로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 곳으로, 넓은 골목이라는 의미의 관항자와 좁은 골목이라는 의미의 착항자 두갈래 골목을 말한다. • 청왕조때 성도에 성을 쌓고 성안에 만족의 군을 주둔시켰다고 하며, 성도에서 유일한 청조 가옥을 볼수 있다. • 동서양의 건물풍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이 그대로 펼쳐져 보이고 현지의 토속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현장 사진	

6. 청명상하원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명상하원(清明上河园)은 송의 저명한 화자 장택단(张择端)의 명작 『청 명상하도』(清明上河图)에 표현된 북송의 변화한 시내를 그대로 재현한 국가 AAAA급 관광명소이다. 면적은 약 600헥타르로, 중원지구에서 제일 큰 송조를 기반으로 모방한 건축군을 이루고 있으며, 중원대항하 여행선에서의 중요한 풍경구를 재현하고 있다. • 우아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경치 속에 북송의 여러 가지 풍속과 문화, 오락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마구 시합, 닭싸움, 각종 잡기와 서커스, 수상 전쟁, 고대 탐험, 계곡 탐험 표류, 대송 문예 등 송대 오락 항목을 개설하였으며 중국에서 제일 큰 고대 오락 재현지로 인기가 높다. 청명상하원의 웅장한 규모와 풍부한 문화적 교류, 새로운 고대 오락시설은 중국 오락산업의 발전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 사진	

7. 소림사, 탑림

구분	세부내용
방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림사(少林寺)는 중국에서 오악 중 중악이라 불리는 허난 성(하남성)의 쑹산(송산)에 위치한 절이다. 무술로 유명하며, 이 때문에 무협소설에서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게 다뤄진다. 중국인으로 무술을 사용하는 대머리 캐릭터는 다 소림사 출신이거나 소림사 스님이라고 할만큼 무술의 아이콘이다 • 처음에 이 사찰은 496년에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가 발타선사(跋陀禪師)를 위하여 창건했다고 전한다. 달마(達磨)가 530년부터 9년간 여기서 좌선했다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 현재는 중국 정부의 공인 체육 교습 기관이며,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됐다. • 소림사 탑림(塔林)은 소림사 역대 고승들의 사리탑 200여 개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각 사리탑은 높이와 모양이 다양하게 건축되었다. '천지지중' 8처 11항 역사건축군 세계문화유산 중의 하나로 사원 서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소림사 역대 고승들의 안식처인 묘지이다. 각종 탑류가 수림처럼 많이 서있다 하여 예로부터 탑림이라 불렀으며 부지 면적은 14000여 제곱미터이다. 현재 당·5대·송·금·원·명·청 현대를 아우르는 248개의 불탑이 남아 있으며 중국에서 현존하는 묘지 불탑으로 수량이 가장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문물 가치가 가장 높은 탑림으로 고대 전석건축, 조각, 서법, 회화예술 모두가 한곳에 담겨 있으며 전문가 학자들로부터 '고대 탑예술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다. 1996년 11월 20일 국무원으로부터 국가급 중점문화보호업체로 공포되었다.
현장 사진	

■ 연수 시사점

- 역사적 자원의 관광자원화에는 반드시 문화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관광자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도시, 국가, 문화, 역사와 교류를 지속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 지역만의 특징, 강점, 약점을 분석하고 브랜드화하여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지자체간의 경쟁 구도속에서도 관광자원의 세계화를 위해 연대하고 규모화하기 위해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자체의 관광활성화 계획은 전체(지역 및 권역)의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개발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지자체, 민관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공공투자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공공이익에 기반을 둔 정책 방향만이 성공할 수 있음
- 지역 문화관광활성화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목표로 하는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등 필히 장기적인 구상과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중국 동북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의 많은 인구는 관광시장에서 블루오션이며, 개척가능성이 높은 지역
- 중국의 역사, 문화, 사화, 인문, 과학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국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